

시정질문 답변

논 산 시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이끌어 주시며,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원도심 이전, 원도심 중심시가지 발전방안, 원도심 중앙로 현대화 정비 및 전선 지중화와

서원 의원님께서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원도심 이전과
관련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취암동과 부창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는 각기 다른 2개의 행정동이 같은
일반주거 지역의 동일부지 (구)논산군청 건물에 함께 위치
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과거 논산군청과 논산읍사무소
청사로 이용되었고, 논산군청 청사를 내동의 현재 시청
위치로 이전하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체
건물을 논산읍사무소 청사로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3월 1일 논산시 승격과 함께 취암동과
부창동 행정복지센터로 분리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공공청사가 한 장소에 위치하여 주차장 부족은
물론 지역민들의 접근성 및 관할 행정구역 관리 등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동청사는 사실상 부창동 지번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협소한 환경의 취암동 행정복지센터는 관할 구역 내 다른 장소로의 이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원도심에 위치한 건물을 포함하여 취암동 관할 구역 내로의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모든 부분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중심시가지 발전방안과 관련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으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증진, 세대융합 공동체 회복,

주거복지실현, 삶의 질 제고 등을 설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 “희희낙락! 동고동락! 함께 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강경 지역의 “강을 담다. 산을 닦다. 강경고을”과 논산반월지역의 “논산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 2개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5 논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검토, 도시지역 구역별 쇠퇴도 분석, 도시재생사업 제외지역 검토를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7개소 지정하였으며,

논산시내 동지역 중 화지3통 지역, 대교3·5통 지역, 반월동 지역, 화지중앙시장 지역 총 4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중 중심시가지형은 논산의 교통중심지로서 인근에 논산역 및 논산시내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가로변 상가 및 문화의 거리 등 노후상가가 밀집된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논산반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전통시장인 화지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논산 중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가락백화점을 포함한 화지 중앙시장을 구역으로 하는 **논산중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꿈과 활력이 넘치는 Central 놀뢰**”를 목표로 전통시장 활력 도모, 쇼핑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노후 이미지 제고 등을 재생전략으로 수립하였으며,

저이용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중앙시장 및 주변 상가 폐점포의 창업 유도를 통한 상권활성화, 빈집 및 노후주택정비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지역은 올해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논산반월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의 구역제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도시 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을 검토 하고, 논산중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원도심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폐가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 중앙로 현대화 정비 및 전선 지중화와 관련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우리에게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논산대교에서 오거리까지 중앙도로는 화지중앙시장과 은행,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 및 차량 흐름이 혼잡한 상황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우리시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개선해 나가고자 행정안전부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6억을 확보하였으며,

중앙로 구간중 하나은행 사거리부터 중교천 구간과 화지시장 인근 일방통행 도로 등을 포함한 도로 2km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로 구간 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논산천 부창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논산대교가 재가설 됨에 따라 교량이 하천 홍수위에 맞추어 승상되어 논산대교 인근 도로가 1.5m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논산대교 재가설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중앙로 도로노면에 대한 보수 및 인도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원도심 중앙로 현대화 정비사업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로 전선 지중화에 대하여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이 선정될 경우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를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논산대교에서 오거리까지 중앙로 850m 구간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략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사업구간 내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과 도로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로 구간 뿐만 아니라 오거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까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과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 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국가산업단지 기업입주 시기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국방혁신도시를 논산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며, 핵심 사업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 사항에 반영시켰고, 충청남도과 함께 국방산업발전

협의회, 국방산업지원팀을 구성하여 전담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 국방산업 지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논산시를 비롯한 7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발표하며,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협의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1년 즈음에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과 논산시는 그동안 2022년 국방 국가산업단지 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국방 산업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충남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국방기관 및 기업체·전시회 등을 찾아다니는 등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유치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현재 국방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우량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이 대상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외사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그중 제7호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단순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아닌 방위산업 활성화와 전력지원체계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국가안보와 국방전력 증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 1%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청와대, 국회,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병행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유효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논산의 미래먹거리, 지역 균형발전,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의 대안인 만큼 앵커기업과 국방관련 주요 기관을 유치하는데 전력특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토부가 아닌 국방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주관부처는 국토교통부 입니다. 다만,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의 풍부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활성화와 군 전력증강 차원에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전력지원 체계를 집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논산만의 지역사업이 아닌 자주 국방을 위한 국가사업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의 핵심요소 입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우리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방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3군 본부, 군수사령부 등 군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인적네트워드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향후 국방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방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원활한 유치와 조기정착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및 품질인증, 입찰 가점 부여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향후 논산의 10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 질 신성장동력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논산은 국방산업을 증추도시로 재탄생하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지금 이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생각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국가산단 조성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살기 좋고 활력 있는 경제도시,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도시 논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7.

논산시장 황 명 선

